

가정 예배 모범

- 2021_10_10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0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꾼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새찬송가 320장)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출애굽기 29:19-34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절차로 위임식을 진행합니까?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과정에서 먼저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위해 숫양을 잡고 그 피를 오른 귓부리와 오른 손발의 엄지에 바릅니다. 그리고 피와 관유로 그들의 옷에 뿌립니다. 이 의식을 통해 아론과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숫양과 무교병으로 요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를 통해 아론과 아들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 제물이 죽어 그 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2) 제사장에게는 따로 기업이 없고,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 모든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론의 자손에게는 할당받은 땅이 없이 성막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기업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게 될 아론 자손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숫양의 속죄 제사를 통해 거룩해진 제사장들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제로 드린 제물은 아론 자손에게 주어지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화목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눕니다. 위임식 이후부터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제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길 간구하며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이 화목하도록 중재하며 화목제를 드립니다. 사람 제사장은 매번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